

조이스와 파넬¹⁾

김 길 중

I

“역사는 악몽이고, 나는 여기에서 깨어나려 애쓰고 있다”(“History is a nightmare from which I am trying to awake”). 『율리시즈』의 초입부 「네스터」장에서 막 역사수업을 마친 스티븐이 학교장 디지씨(Mr Deasy)와 면담하는 가운데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얼핏 블룸 중심의 현란한 서사(敍事)가운데 불시에 끼어든 조연급 등장인물이 자신의 불만과 실의를 짐짓 현학적으로 또 극적으로 토로한 여느로운 언사처럼 보인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거친 독자들은 젊은 스티븐의 번뜩이는 지적 재치와 촌철살인의 경귀에 매우 익숙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티븐의 이 고백적 선언이 조이스 작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귀절중 하나이고,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발설자의 일과성 기분이 아니라, 스티븐이나 스티븐으로 대변되는 작가 조이스의 세계관을 의미있게 귀뜸하여 준다. 독자들이 이 말의 울림에 감화됨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스티븐식 경귀의 신랄한 재치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이 선언이 밀어처럼 함축하고 현시하는 조이스 에피퍼니의 역사적 상

1. 본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쓰여진 것임.

상력이 관건이고, 각각의 독자는 나름대로 내면화한 역사의식이 있어서 이에 동정적으로 교감하는 것이다. 그 곡절을 밝히는 제반 노력은 조이스를 언어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필적할 터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조이스와 조이스의 시대에 관한 연구의 숙제였다. 1990년 가을에 예일대학에서 '조이스와 역사'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모임이 있었고, 그 결실이 익년 여름호 *James Joyce Quarterly*에 특집으로 기획 전제되었는데, 이는 조이스 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합의의 표현으로 보인다. 본 논문 또한 조이스를 역사속에서 읽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사에 관한 일체의 통시적인 접근을 역사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릴 수 있다. 따라서 '역사'라는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의미범주에는 특정한 사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역사에 관한 성찰이나 개인사속에 편린으로 부침하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역사적 이미지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 객관적 연대기는 물론 역사적 시각 내지 인식 등 사(私)적 관심에서 공식적 판단에 이르는 일체의 반응도 확연히 역사의 영역이다. 이 모든 영역이 온당한 조이스의 역사 테마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들이 조이스에게 빈발하는 막연히 장식적인 소재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관전적인 작가의 상상력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 텍스트의 전반에 걸쳐 그 증후가 편재하여 있을 터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독자는 작가가 역사내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깨우치는 것이다. 작가의 평론과 서간등 자술 부분에서 민족테마에 관한 시사논평의 존재를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보다 세세한 사례로, 『더블린 사람들』이 아일랜드 역사의 "도덕의 장"을 쓰는 것이라 운운한 작가의 주장이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 운운한 결구의 웅변이나, 『율리시즈』의 「이올러스」장의 스티븐의 소위 "자두의 우화"(Parable of the Plums), 「서어씨」장의 블룸의 시장 추대 장면 등에서, 역사안에서 글을 쓰는 작가의 실루엣을 좀더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율리시즈』나 『피네간의 경야』 등에 소소하게 역사와 사회의 크고 작은 모티브가 서로 굴절의 정도를 달리하며 산재하여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와 연구가들의 눈에 비친 이 작가의 특징적 면모는 화려한 언어의 장(場)을 역사의 방책(pale)밖에 구축한 탁월하되 비사회적인 장인의 이미지이다. 조이스의 언어집착이 유별났던만큼, 이와같은 이미지는 지금까지 상당 몫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하였다. 조이스의 독법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우리 당대의 최고의 조이스 비평가 가운데 하나인 휴 케너의 『율리시즈』 연구서의 한 대목을 통해 그 명암을 좀더 가늠하여 보자.

『율리시즈』의 맨 첫 장면에서 버크 멀리건은 아침 바람에 잠옷자락을 사제의 법복인양 휘날리며 마텔로 탑위로 오르면서, 거울과 면도기를 십자모양으로 종지위에 엮놓아 받쳐들고, “인트로이보 아드 알타레 데이(내 하느님의 지성소에 오르노라)”하고 구성지게 독송한다. 그런데 케너에 따르면 멀리건의 이 연사의 자격은 텍스트에 표현된 바대로 단일한 인용부호(조이스가 자신 특유의 개성으로 채택한 프랑스식 대시)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첫째, 멀리건은 자신의 생각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악령미사(Black Mass)의 집전사제(celebrant)를 흉내내는 것이고, 둘째, 또, 이 사제는 아일랜드 신부의 몸짓을 모방하는 것이고, 셋째, 또, 그 사제가 독송하는 구절의 출전은 미사전례집(Ordo)이고, 넷째, 또, 그 미사전례집은 성 제물의 라틴어 번역을 차용한 것이고, 다섯째, 또, 이 라틴어 귀절은 어느 이름모를 유대 송찬(頌讚)시인이 유랑중에 썼다고 알려진 “Va-a-vo-ah el mizbah elohim”의 번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멀리건이 독송하는 이 미사 제례어구(이 귀절의 출전은 “지성소에 임하는 기도문, Prayers at the Foot of the Altar”으로서 전에는 미사전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제2차 바티칸공회 이후 폐기되었다함)는 단일 인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Introibo ad altare Dei.”””””

와 같이 따옴표 속에 따옴표, 다시 그 속에 따옴표, 다시 그 속에 또 그 속에 따옴표, 하는 식으로 여섯겹의 중첩인용의 결과라는 것이다(Kerner, 34-5).

엄정하게 말하면 히브리말로 된 이른바 원전으로부터 멀리건의 독송에 이르기까지의 인용이나 차용의 계기가 예컨대 다섯이나 열이 아니라 굳이

여섯겹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 히브리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의 중첩과 변용에 상응하는 장구한 시간동안의 우여곡절의 산물일 수 있다. 또, 원론적으로 보아, 인용, 변용, 중첩은 근래의 포스트계열 비평과 이론이 애호하는 메타포인 중세 서양의 기록판(palimpsest)처럼 언어 전반의 모든 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한 문화 코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요, 특정 작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케너의 재치로 가득찬 통찰은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서 언어의 일반 원리에 관한 한가지 선험판단의 가능성을 열어준 대신, 오욕칠정을 가지고 분별하고 재량하고 선택하는 작가의 인간적 주제를 해명하는 과제를 유보한 셈이다. 다의적인 조이스 텍스트가 조이스적 재치와 통찰에 능한 케너식 어법으로 해명됨이 크지만, 그가 『율리시즈』를 해명하기 위하여 즐겨 쓰는 개념인 텍스트의 “기술공학적 장”(technological field)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예이츠 이후의 아일랜드의 큰 시인중의 하나인 패트릭 캐버너가 「누가 제임스 조이스를 죽였는가」(Who Killed James Joyce?)라는 풍자시(Kavanagh, 117-8)에서 신랄히 질타한 바대로 오로지 맹목의 학업 혹은 생업을 위하여 (이 가시돌린 풍자는 캐버너 자신의 실제로 쓴 말이지만, 필자가 설명하려는 의도의 명암의 대조를 극대화하려고 얼마간의 무리를 무릅쓰고 편의상 끌어들이는 당대의 탁월한 비평가요 박식무비한 학자인 케너와 무관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조이스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케너는 조이스 언어의 경이로운 안내자임에 틀림없으며, 또, 조이스의 경우는 언어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가 펼쳐지지 않으며, 심지어 다소 과장하여 말하자면, 그의 어법이 바로 그의 세계인 점이 있으나, 그럴수록 캐버너의 직관적인 경고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텍스트는 역사와 인생에 관한 전망이 없는 미노스왕의 죽임의 미로로 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인식과 전망을 토대로 조이스에게 파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이스 텍스트에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역사읽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파넬의 모티브가 단연 현저할 뿐더러, 파넬이야말로 작가의 세계인식에서 화두 혹은 시금석에 필적하는 존재였음

이 분명하고, 또 이와같은 인식은 당대의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지 조이스만의 개성적인 환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II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1846-91)은 누구인가? 조이스 읽기에 참고가 될만한 그의 생애와 시대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Abels, Ellmann, Boyce, Foster, Philpin, *et al. passim*). 그는 1846년 6월 27일 북쪽으로 더블린 카운티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위클로우(Wicklow) 카운티의 에이 본데일(Avondale)이란 마을에서 프로테스탄트 앵글로게인 존 헨리 파넬과 미국계인 딜리아 스튜어트를 양친으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의 계도와 영국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는 제임스 조이스처럼 형제자매가 많아 열한명이나 되었는데, 마치 조이스가 벗할만한 형제로 동생 스타니(Stannislus)를 유독 가까이 하였듯이, 찰스 파넬은 3년 아래 동생 패니(Fanny)를 특히 좋아하였다 한다. 패니 파넬은 어렸을 때부터 열렬한 반영주의 성향을 보였고 피니언(Fenianism)에 동조하여 오리어리(John O'Leary)가 편집하던 잡지 *Irish People*에 애국시를 기고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시인이 된다. 그녀의 시 "I am Ireland"는 지금도 아일랜드 시화집에 자주 실린다. 이것은 파넬의 반영주의의 배경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집안의 반영국 정서의 근원은 1812년의 영미전쟁의 반영유산은 어머니를 통하여 물려받은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은 영국을 열렬히 증오했면서도, 영국의 교육을 높히 생각하고 영국제 물건을 매우 좋아하였다 한다. 케임브리지 대학 모들린 컬리지 시절 파넬은 인근의 농촌 처녀와 사귀다가 참담히 실패하기도하고, 동료학생들과 심하게 싸워 학사처벌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는 끝내 학위없이 중도 탈락한다. 어쨌든 학창시절 영국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아일랜드 출신에 대해, 영국계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가졌던 오만한 우월감은 성장한 파넬의 반영 아일랜드 민족주의 의식 형성에 암암리

에 일조하였던 듯하다. “영국인들이 우리를 아일랜드에서 왔다고 멸시하는데, 우리는 맞서야 해! 당당히 맞서야 해!” 하고 되풀이하여 말하였다고 전하여 진다(Abels, 38).

에이츠와 조이스 등의 파넬 편향의 요체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종의 개인숭배인 까닭에, 그의 사람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성품은 자부심이 강하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눌하면서 냉정하고, 고집세고, 고고하였다. 이와같은 성품은 대체로 어머니쪽 체질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내향적 성격에 우울증세가 심하였으며, 평생동안 몽유병 증후를 경계하고 살았다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에이츠와 조이스를 포함한 세기말 세기초의 아일랜드의 문학적 정서속에 파고 든 파넬의 매력은 그가 가졌다고 믿어지는 신비로운 품격이었는데, 그 품격 혹은 성격 안에는 흔히들 “정치적 자질”이라 부를 만한 것이 너무나 모자랐던 것 같다. 에이블즈의 전기에는 이 “수줍고, 뜻되고, 정치적으로 무지한 청년”(shy callow politically naive youth)의 첫 정치입문의 실루엣을 이렇게 전한다. 1874년초 더블린 보컬선거에 출마하여, 정견발표 도중 자신의 차례가 되어 등단한 28세의 청년 파넬은 “Gentlemen, I am a candidate for....the representation of the County of Dublin.” 라는 자기소개만을 두번 거듭하고 말문이 막혀 퇴장하였다. 결과는 테일러(Colonel Taylor)가 2,112표를 얻어 당선하고, 낙선한 파넬의 득표수는 그 절반인 1,141표이었다 한다(Abels, 67). 이와같은 성격적 장애가 오히려 차후 그의 신화창조에 일조하게 되니 역설이라 아니할 수없다.

그러나 몇 달후 파넬은 자치연맹 상임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Home Rule League)의 위원으로 발탁되고 이어서 이듬해 1875년 4월 미드(Meath)의 보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별스러운 난관없이 정치계에 데뷔하고 빠르게 성장한다. 그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국회에 나아가 처녀 연설도 하고, 다수당의 획책에 맞선 소수파의 저지책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다섯 시간씩 그저 “잠시 얘기”(speak awhile)하여 의사를 방해하는 이 술책은 당시는 흔히 “game of obstruction”이라고 불리우다가, 차후 미국으로 건너가 “filibuster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북아일랜드 출신 의

원인 비거(Biggar)와 협력하여 창안 활용한 새로운 의회전술이었다. 1876년 11월에는 미국을 아일랜드 대표의 자격으로 두 번째로 방문하여 아메리카 독립 백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아일랜드를 위한 모금활동도 벌인다. 이때 어머니와 여동생 패니가 동행하였다. 1877년 8월에 파넬은 「자치를 위한 전영국 연합」(Home Rule Confederation of Great Britain)의 회장으로 피선된다. 그 이듬해에는 아일랜드 공화동맹(Fenians)의 좌파계열로 분류되는 디보이(John Devoy)로부터 조건부 지원을 약속받고, 다시 일년이 지나서는 디보이와 당시 토지연맹(Land League)의 결성을 획책하며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마이클 대비트(Michael Davitt, 1846-1906)의 첫 삼자회담이 이루어진다. 대비트 역시 피니언 좌파계 출신으로서, 영국계 지주계층으로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실세”(The Protestant Ascendancy) 출신인 파넬과는 내면적으로 질서와 불신이 없지 않았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곧 파넬이 이 토지연맹의 회장직을 맡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두가지 중대한 정치 이슈였던 토지개혁과 자치투쟁을 정치적으로 통합한 성과에 해당한다.

1879년에서 1882년에 이르는 기간은 아일랜드의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소작쟁의등 농민소요가 유독 우심하여 아일랜드의 근대사에서 이른바 “토지전쟁”(Land War)으로 불리우는 시기이다. 파넬은 서부 메이요(Mayo) 등지를 순회하며 계몽연설을 하고, 자신의 당파인을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후원하며, 동년 10월에 이르러 아일랜드 전국 토지연맹(Irish National Land League)이 결성되자, 그 회장직을 수락한다. 민족자치를 표방하는 파넬이 토지연맹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흡사한 모험(Foster, 405)이었으나, 그의 명성을 그만큼 극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는 파넬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공화동맹(Fenians)과 관계하며 취한 “수사적 극단주의”(Foster, 401)를 환기시키는 바가 크다. 그의 소작료 인하운동에 부응하여 1881년 메이요에서 일어난 소위 “보이콧” 운동은 후년에 전세계적인 보통명사로 쓰이게 되는 유명한 역사적 일화이다. 영국의 부재지주 하나(Carl of Erne)가 이 심(深)서부의 고장에 많은 농토를 가졌고, 그 현지 관리인이 보이콧(Captain Charles Boycott)이었는데, 이 관리인이

소작료 인하운동에 너무 지나치게 비타협적이었던 나머지, 분노한 인근의 농민들이 뚝뚝 뭉쳐서 보이콧과의 일체의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한 것이다. 파넬바람의 위력적인 여파로 볼 수 있는 한가지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이 방법은 예컨대 축출된 소작인(evicted tenants)의 경작지를 소작받는 농민의 배척운동에 응용되어 쓰이는 등 파급효과가 컸다. 1880년대초 격동의 시기에 서남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번졌던 토지소요와 관련된 농민저항운동 가운데에는 사냥저지운동이라는 특이한 것도 있었다. 영국인 지주들의 여우사냥을 집단으로 위협적으로 방해하는 소요가 요란하게 빈발하였는데, 농민저항의 전면성과 심각성을 짐작케하는 현상이었다(Philpin, 349-402).

당시 파넬의 정치활동 명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880년 초에 기금 모금운동차 세번째 미국여행을 화려한 정치적 각광을 받으며 다녀오고, 귀국후 여러지방의 선거에 후원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아일랜드의 서남부 도시 코크(Cork)를 선거구로 삼는다. 그 해는 또 훗날의 파넬의 영광과 비운의 계기가 말하자면 한꺼번에 찾아온 해이다. 이해 5월에 파넬은 대영제국의 하원의 아일랜드당 수장으로 선임되었고, 7월에는 차후 파넬 스캔달의 상대역이 되는 오셰이 부인(Mrs. Katharine O'Shea)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1881년에 소작쟁의에 관한 약간의 개혁조치와 아울러 여러가지 억압적인 법규(Coercion Acts) 도입되는데, 토지연맹의 불법화가 그중 하나이다. 토지개혁운동의 이와같은 좌절과 함께 아일랜드당이 웨스트민스터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한때 분분하게 된다. 파넬은 당시의 글래든스톤 정부의 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하다가 잠시 투옥되었고(파넬신봉자들은 그가 옥중에서도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여 속칭 "Kilmainham Pact"를 성사시켰다고 믿음), 조이스의 탄생연도인 그 이듬해 1882년 5월에는 피닉스공원에서 아일랜드성 장관 캐벤디쉬(Lord Frederick Cavendish)와 부장관 버크의 암살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를 빌미로 경찰의 파넬 내사가 시작되며, 오셰이 부인과의 교제가 내각안에 뒷공론으로 도는 일도 생긴다.

1883년 10월에는 그때까지 명색으로 회장직을 가지고 있던 민족연맹을

전영국 아일랜드 민족연맹(Irish National League of Great Britain)으로 개편하고 오커너(T. P. O'Connor)를 실세회장으로 그의 뒤를 잇도록 한다. 12월에는 공개된 집회에서 3만7천 파운드의 감사기부금을 수령하여 추후에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엘먼에 따르면 파넬은 이 거액의 기부금을(그는 그 액수를 3만8천 파운드로 적고 있음) 단 한마디의 감사의 표시도 없이 담담히 받았다 하며, 그 고고함과 냉정함을 후년의 조이스가 두고두고 찬탄하여 마지않았다 한다. 1885년 10월에 막 실각한 글래드스톤에게 오셰이 부인이 파넬이 작성한 아일랜드의 자치에 관한 법률시안을 보내는 일이 있었고, 동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된 총선거에서 파넬의 민족당 쪽에서 85석의 큰 수확을 거두게 되며, 오커너도 스코틀랜드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 1886년에는 글래드스톤이 자치지지로 돌아서고 사임한 솔리스베리를 이어 다시 수상에 취임한 일, 그의 첫 자치법안(Home Rule Bill)이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때마침 일어난 격렬한 자치안 반대궐기를 구실로 부결된 일, 골웨이(Galway)의 보궐선거에서 파넬의 후원하에 오셰이(William Henry O'Shea)가 상대를 압도하며 당선한 일, 보수당이 자유당내의 영란(英蘭)합병론자들과 연합하여 총선에서 다수파가 된 일 등이 있었다.

파넬의 불운 혹은 소위 “배반”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다. 1887년 4월 런던의 타임즈지가 5년전의 센세이셔널하였던 피닉스공원 정치 암살의 정당함을 은연중 설파하는 편지를 게재하면서 그 편지를 쓴 이가 필적으로 보아 파넬일 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것이 파넬을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뜨렸는데, 1889년 2월에 이르러서야 파넬이 기민하게 제시한 반대증거(문제의 편지에 나오는 단어 ‘hesitancy’의 철자 오류)로 혐의를 벗게되고, 밝혀진 편지의 위조인 피고트(Richard Pigott)는 수모속에 자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이스의 파넬에 관한 강렬한 기억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트의 아들이 조이스와 함께 클롱고우즈 학교에 다닐 때 이 일이 벌어졌고 아버지의 자살을 아이에게 숨기라는 학교당국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입바른 아이 하나가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Elmann, 32). 이로 인하여 파넬의 명성은 마치 돌린 신부에게 부당한

벌을 받고 교장에게 호소하여 억울함을 벗은 다음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신나는 행가래를 받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처럼 잠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10개월 정도 지난 연말에 이르러 파넬의 장엄한 몰락의 전조가 온다. 오세이가 돌연 부인과의 이혼청원을 제소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가 그때에 이르기까지 10년간의 별거생활중 서로의 교제를 묵인하여 오던 파넬을 (3년전 그가 골웨이에 오세이를 출마케하여 당선을 도운 것도 사실은 이 묵인의 댓가라는 설이 있음) 부인의 간통행위의 상대방으로 거명하여 명망이 절정에 이른 이 정치지도자에게 일대 도덕적 타격을 가한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이 이혼청원은 이듬해 11월이 되어서야 청원인 오세이에게 이혼 성립 가결정(decree nisi)을 내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 사이 파넬의 몰락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없이 진행된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아일랜드의 자치를 표방하던 글래스스턴은 부도덕한 파넬이 아일랜드당의 의장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임하겠노라고 욕박질렀고, 1890년 11월 20일에는 전국자유연합(National Liberal Federation) 또한 강경한 어조로 파넬의 부도덕을 비판한다. 닷새후 25일에는 파넬이 다시 아일랜드당의 의장으로 재선출되어 그의 역량을 과시하고, 이어서 28일에는 “아일랜드 국민에게 고함(To the People of Ireland)”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지만, 반전의 전망은 매우 험난하였다.

아일랜드당은 12월로 접어들어 한 주 내내 논의를 거듭한 끝에 토요일인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하원 제 15호 위원회실에서 오래도록 열렬한 파넬 파였으며 사전의 초기까지도 파넬에 대한 충성을 공언하다가 끝내 돌아선 힐리(Timothy Michael Healy)와 맥카시(Justin McCarthy)등이 중심이 된 반파넬 다수파 45인이 26표를 지킨 파넬의 민족당을 떠나 이른바 대분열(the Split)을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회실 15호의 반란과 거의 동시에 아일랜드 카톨릭 주교 상임 위원회(Catholic Episcopal Standing Committee)도 오랜 망설임 끝에 파넬을 공식적으로 매도하고 나선다. 나라는 이로서 친파넬과 반파넬로 양분되어 좌절과 분노로 가득찬 대중적 정치감정을 분출하기 시작한

다. 12월 10일 파넬이 더블린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엄청난 군중이 몰려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아일랜드의 중남부 선거구 킬케니의 보궐선거에서는 반파넬 후보가 당선된다. 약간의 거중 조정 노력이 실패하고, 서부 슬라이고 등지의 선거에서도 파넬당이 패배를 거듭하는 가운데, 파넬은 1891년 6월 25일 오세이 부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 대체로 도시의 중산층 중심으로 파넬신봉자의 저항이 컸고, 기타 농촌지역에서 이반이 빨랐다. 그의 사후에는 예이츠처럼 앵글로계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작가들, 계층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실세”(the Ascendancy)와 연관된 작가들이 추앙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넬은 약해지는 건강상태를 돌보지 않고 필사의 처절한 노력으로 대세를 만회코저 전국을 돌며 대중연설을 하게 되는데, 9월 27일 로스코몬의 크레그스에서 그 마지막 연설을 하고 10월 6일 영국의 브라이튼에서 숨을 거둔다. 더블린으로 귀환한 그의 시신은 일요일인 10월 11일 시청에 안치되어 시민의 조문을 받은 후, 더블린의 서북에 위치한 글레스네빈의 공동묘지에 안장된다. 『율리시즈』에서 블룸이 패디 디그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영웅의 장례의 하관시에 큰 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나, 그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쏘에서 잠시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때늦게 1917년 공연된 앵글로계 작가 레녹스 로빈슨의 『실종한 지도자, *The Lost Leader*』는 이에 토대한 작품임) 등을 되뇌이는 바로 그 공동묘지이다. 큰 별이 때를 맞추어 떨어졌다는 보고는 여기저기 빈발하므로, 이것은 우연히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인 듯하다. 어쨌든 아일랜드의 현실정치로부터 파넬의 비극적 퇴장은 집단적 정치열정의 패퇴를 맞본 많은 아일랜드인들에게 이를테면 역사의 추락과 같은 상징적 현상으로 비쳤다. 예이츠는 그의 자서전에서 파넬이 죽은 이후 한동안 동료들과 회동하는 밤이면 새벽녘에 이르도록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파넬의 이야기에 골몰하였다고 토로하고 있다(Yeats 1965: 156). 그런데, 조이스의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상상력이 소박하게 이를 반영하는 점이 의외로 크다.

III

조이스가 파넬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를 규명할 수 있는 경로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작가자신이 파넬에 대하여 직접 판단을 피력한 바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파넬주제를 분석하여 그의 역사에 관한 상상력을 가늠하여 보는 것이다. 전자에 관한 주요 문건은 조이스가 유럽행 이전에 더블린의 신문등에 발표한 평론외에 트리에스테 시절의 “파넬의 그늘”(The Shade of Parnell)과 같이 직접 파넬을 주제로 이야기한 강연의 기록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정치와 역사에 관한 이런저런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비판적인 에세이들이다. 그중 트리에스테의 글판들은 주로 1907년과 1912년 어간에 요즈음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일종의 개방대학이었던 “트리에스테 민간대학”(Universita Popolare Triestina)에서 행한 강연과, 주로 1907년 당시 현지의 중요 신문이었던 *Il Piccolo della Sera* 에 기고한 글로 이루어져 있다. 두 기관이 모두 오스트리아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탈리아로 복귀하고자 열망하는 고토복원운동(Irredentism)의 성향이 강하였고, 이에 암암리에 부응한 조이스의 주제는 아일랜드의 이런저런 상황에 관하여 이탈리아말로 쓴 시평이었다. 마침 강연초빙자의 하나인 *Il Piccolo della Sera* 의 편집장 프레지오소(Roberto Prezioso)는 조이스의 친구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리츠(Berlitz)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 작가의 제자로서 이탈리아 민족주의 입장에서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트리에스테 통치에 저항하는 지식인이었다.

이와같은 정황하에 쓰여진 조이스의 제 1차 세계대전전 트리에스테 시평들은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의 역사와 민족성에 관한 진단에 집중되었다. 이탈리아의 미회복 고토(Irredenta) 트리에스테의 역사와 정치에 관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와 동병상련의 관계라는 인식이 저편의 기대였고, 조이스는 이에 흔쾌히 부응하였다 할 수 있는데, 민족문제 부문에 관한 내용의 풍요로움으로 보나, 군데군데 번뜩이는 도덕적 해학, 비판적 반어, 어세의 열정으로 보아, 단순히 초연한 입장에서 서술된 향토사 소개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작가의 비정치적 성향과는 달리, 또 탈민족적 코스모폴리타니즘 성향과는 달리, 조이스의 원래적인 민족의식이 반영되었다고 아니 볼 수 없다. 1959년 메이슨과 엘먼이 조이스의 평문을 두루 수합하여 펴낸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에는 “Dooleysprudence”와 같은 풍자시 몇몇을 포함하여 모두 5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Trust Not Appearances”와 같은 초기의 글 몇몇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학적, 사춘기적 치기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심미주의라 이를 만든 것은 거의 없고, 작가 나름으로 민족과 세계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감상과 희망을 피력하는 내용이 의외로 다수 편수임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의 편협한 지역주의를 항시 경계하고, 퇴영적 복고주의, 토속 환상주의, 등을 질타하고, 입센의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문학을 선양하는 것도 민족문화에 관한 깊은 관심을 전제로한 부정의 정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망간(James Clarence Mangan)과 같은 민족주의 시인, 파넬, 자치안 입법, 아일랜드 공화주의(Fenianism), 아일랜드의 성인들, 아일랜드의 역사, 등과 같은 주제의 시평은 보다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민족 테마를 다룬 평문이며, 그 상대적 편수가 단연 많다.

이는 『더블린 사람들』의 출간 문제로 그랜트 리처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화려하게 선언한 이른바 “아일랜드의 도덕적 역사의 한 장”(Letters, 83)에 작가가 실제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대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작가의 민족테마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아일랜드 민족의 문제는 그 내용이야 어떻든 적어도 초기에는 (조이스 시평이 대체로 1910년대에서 끝나고 있으므로) 작가의 확실한 문학적 과제이었다. 다만 현실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민족주의 과제를 중심으로한 당대 아일랜드의 정치문화적 과제 의식 자체는 조이스에게도 관전적 관심사였다 할 수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끝에서 대학생 스티븐이 은밀하게 출국을 획책하며 민족주의자 친구인 대빈(Davin)과 회동에서 “민족(nationality)과 언어(language)와 종교(religion)”라는 이름의 옥죄는 그물을 비켜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친구가 권하는 민족노선에의 동참을 거부

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포기한 것은 다수가 선택한 특정한 노선이지 그의 과장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스티븐이 반대명제를 세우는데 동원된 민족개념들과, 그에 수반하는 걱정과, 무엇보다도 책의 최말미에 “나의 영혼의 용광로 안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나의 민족의 양심을 버리겠다”는 시원적이며 열정적인 민족 비전이 이 주인공과 주인공을 만든 작가가 가진 민족 이미지 집착의 강도를 보여준다. “나의 민족”이 “나의 영혼”과 “용광로”의 형국으로 혼연합일함을 선포하는 스티븐의 바 이론적인 비장감을 그 내용이 아리송하다고 도외시킬 수 없다. 작가 조이스의 의식은 최소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단계에서 아직 역사 밖으로 걸어 나가지 않은 것이다.

조이스의 작품속에서 파넬을 독자적인 주제로 다룬 것은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인 「위원회실의 추념일」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제 1부의 셋째장인 스티븐가의 성탄절 만찬 장면이다. 조이스의 모든 텍스트가 시종 허구와 사실, 언어와 역사 사이의 중첩과 왜곡과 긴장으로 엮여졌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의 두 설화는 작가가 비교적 뚜렷한 현실역사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역사읽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글쓰기가 일어난 시간의 순서로 보면 「위원회실의 추념일」이 성탄절 만찬 장면을 앞서지만, 객관적 개인사의 연대기에 따르면 선후가 뒤집혀 각각 1902년 10월 6일과 1891년 12월 25일에 각각의 일화가 일어난 것으로 된다. 전자의 날짜는 파넬 추념일로 시간이 설정된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에드워드 7세의 더블린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문이 역사적으로 1903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고, 후자의 날짜는 파넬의 서거당년에 맞는 성탄절이므로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공적인 역사서술의 입장에서 보면, 파넬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의 대비이고, 조이스의 개인사의 입장에서 보면, 유년과 성년 혹은 조국의 품안과 유랑중의 트리에스테의 대비이며, 심미적으로는 현장과 기억, 체험과 해석의 대비이다. 그러나 쓰여진 시점은 모두 파넬서거 이후라는 점에서 같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첫 클롱고우즈 장면의 말미는 스티븐이 병이나

서 양호실에 기거하며 집을 그리워하는 배경하에, 파넬의 죽음과 그 시신의 더블린 입항 소식으로 학교의 어른들이 수련거리고, 끝내 애통해 하는 모습을 스티븐의 의식과 상상에 각인된 바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뒤이은 성탄절 만찬 드라마의 전조이다. 아픈 몸을 웅크리고 눈꺼풀 열어 들고나는 이미지들을 예민하게 거두고 있는 스티븐에게 어른들 세계의 혼돈과 격동의 조짐이 내면의 환영과 뒤엉키며 어둠속의 섬광처럼 번뜩이는 것이다.

He saw him lift his hand towards the people and heard him say
in a loud voice of sorrow over the waters:

--He is dead. We saw him lying upon the catafalque.

A wail of sorrow went up from the people.

--Parnell! Parnell! He is dead!

이 파넬 죽음의 의미가 소설 서술의 심미공간 안에 가두어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19세기 후반 아일랜드의 파란만장한 실제 역사의 한 토막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그 뜻과 의미가 굴절하는 역사의 현장에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 삶의 현장이 작품밖에 위치하면서 작품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책의 모두에 어린 스티븐의 눈에 비친 댄티(Dante)가 가진 민족주의 상징물 한쌍, 곧, 마이클 대비트를 상징하여 등결에 다갈색 벨베트천을 댄 옷솔과, 찰스 파넬을 상징하여 녹색 벨베트천을 댄 옷솔도, 소설적 서술의 논리라는 잣대로 보면, 일견 무심하고 우연하게 비치된 자잘한 소도구로 보이지만, 사실은 시대의 거대한 배경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겠다. 작은 모티브 속에 큰 뜻을 숨겨 담는 기법이 잘 알려진 조이스 스타일이지만, 그 기법의 효력은 색다른 심미적 장치의 창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심미공간과 현실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각자 나름의 역사읽기, 역사쓰기에 참여토록 한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조이스의 특징적인 모티브는 사실의 세계로 통하는 환유의 창과 같기 때문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초반부의 파넬 모티

브의 경제적 운용은 이에 덧붙여 어린 스티븐의 초보적인 세계인식 수준에 걸맞은 사실주의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자는 아이의 눈에 비친 파넬 드라마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독서의 과정에서 상기할 수 있다.

덴티의 옷장에 사이좋게 함께 놓인 마이클 대비트와 파넬의 옷술은 당시의 양대 정치문제였던 토지문제와 민족문제 및 그 각각의 지도자와 그들간의 협력국면과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특히 1880년대) 자체를 환기하고, 클롱고우즈 학교의 양호실 장면 끝부분은 그의 죽음이며, 성탄절 만찬 장면은 파넬의 사후의 민족 분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파넬 스토리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드라마의 세 국면인 그의 활동과 죽음과 죽음이후를 담고 있다. 조이스가 이 역사의 세 국면에서 소설적 탐구를 위하여 간택한 장면은 그중 세번째 국면이며, 이 선택 자체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의 일각을 귀뜸한다. 곧 작가의 관심은 파넬 자신의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넬의 비극적 이미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탄절 만찬의 정치토론은 작가가 마음먹기 나름으로 인상깊은 사실주의 드라마를 엮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파넬파와 반파넬파와 교회의 입장 등 당시의 정치 현안과 그 대변자들이 데덜러스가의 식탁 규모로 축소된 상징적 무대 위에서 재연하는 바와 같다. 케이지와 사이먼 데덜러스는 열성적인 파넬당으로 반파넬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덴티와 한치의 양보없이 격돌한다. 케이지등은 정치적 좌절감 속에서 비아냥과 이죽거림으로 시작하여 언성을 높이고, 고함지르고, 욕설과 신성모독을 서슴치 않다가 끝내는 눈물을 펄펄 쏟는다. 이에 맞서는 덴티는 처음에는 상대의 도발을 냉랭한 침묵으로 무시하다가 이내 맞고함으로 교회의 도덕적 판단을 옹호하고 파넬의 행실을 저주하는데, 그 기세의 맹렬함 뒤에는 지난날에 억울하게 결혼의 파기 혹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여인의 한이 있다. (이것은 작품내 사실이 아닌 작가의 전기에서 추적한 인물 원형의 내력이지만, 작품의 자서전적인 의도와 형식을 감안하면, 또 조이스 텍스트에서 어떻게 허구와 사실이, 또, 공적 역사와 사적 역사가 교차하는가를 감안하면, 덴티 원형의 전력은 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데덜러스 부인과 잉클 찰스는 매우 무력한 중재인으로서 상

서롭지 못한 소동을 잠재우려고 헛되이 노력하는데, 역사적으로도 파넬의 분열(the Split) 이후에 유사한 화해의 중재가 미미하게 있었고 또 실패하였다. 싸움은 친파넬과 반파넬의 양대진영을 대리하는 한지붕 아래의 식구들이 아일랜드 혹은 하느님의 명분을 질편하게 동원하여 격돌에 격돌을 거듭한 후 반파넬의 승리선언으로 종결된다.

At the door Dante turned round violently and shouted down the room, her cheeks flushed and quivering with rage:

--Devil out of hell! We won! We crushed him to death! Fiend!

덴티의 열화같은 이 승리선언의 위력은 그 적개심의 강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역사에서 파넬이 비극적으로 패퇴하였기 때문에, 덴티의 선언은 그녀의 적개심과 무관하게 역사의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충직한 파넬 주의자의 정치적 열정은 그 좌절감으로 인하여 한동안 그토록 격렬하였으나 이제는 패배가 돌이킬 수 없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덴티의 승리선언에 이어 어린 스티븐의 눈이 마지막으로 목도한 성탄잔치의 참담한 종국으로서, 케이시의 깊이 모를 좌절이 문장의 종지부처럼 전쟁에 방불했던 파넬스토리의 대단원을 마감한다.

Mr Casey, freeing his arms from his holders, suddenly bowed his head on his hands with a sob of pain.

--Poor Parnell! he cried loudly. My dead king!

He sobbed loudly and bitterly.

Stephen, raising his terrorstricken face, saw that his father's eyes were full of tears.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성탄절 만찬 장면의 파넬논쟁은 엄청난 민족주의적 에너지를 배출한 다음, 마치 기왕의 역사를 추인하듯 이렇게 파넬당의 패배로 종결된다. 『더블린 사람들』에 실린 이야기들은 그 종결부에 핵심적

인 에피퍼니가 일어나는 수가 많다. 마찬가지로 성탄절 만찬의 드라마도 그 종결부에 은근하게 심미적 초점이 놓여 있다. 파넬은 한때 아일랜드 민족의 정신적 왕, 이른바 “왕관없는 왕”이었으나, 그는 지금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의 사실에 대해 집안의 파넬 대변인이 도리없이 승복한 것이다. 그리고 조이스의 역사적 상상력의 큰 줄기는, 마치 파넬의 죽음이 뜻하는 온갖 좌절감의 화신인 케이지처럼, 또 그를 목도하는 차세대인 어린 스티븐의 “공포에 질린 얼굴”의 굳은 표정처럼, 그리고 케이지나 댄티와 같은 걱정의 주인공들이 퇴장한 이후의 무대의 정적처럼, 파넬을 최후의 지표로 삼아 일거에 멋어 버린듯 보인다. 조이스의 작품속에 파넬은 아일랜드 역사 최후의 국면으로, 작가가 역사내의 존재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유일한 공간이 파넬 테마이며, 파넬이후의 아일랜드는 반란과 독립과 내전의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펼쳤으나, 조이스의 참여적 열정을 전혀 자아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파넬의 먼 이후요 아일랜드의 탈식민지 시기에 해당하는 『올리시즈』와 『피네간의 경야』가 그 범람하는 아일랜드 모티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만찬 장면의 걱정애 필적하는 참여적 국면이 없음으로 방증된다.

『더블린 사람들』의 「위원회실의 추념일」은 파넬 이후의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적인 코멘트이다. 엘먼의 전기에 의하면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가운데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가장 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필경 자신의 파넬 숭앙과 민족주체에 관한 의견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파넬이 서거하던 해 성탄절 만찬 정치 토론의 결론은 파넬의 죽음, 혹은 파넬시대의 대책없는 종언 선언이라 하였다. 이 「위원회실의 추념일」은 파넬 이후 시기에 “파넬의 없음”의 확인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작품이 쓰여진 연대로 보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더블린 사람들』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쓰여진 연대가 앞서 말한 바대로 모두 역사적 파넬 드라마 국면 이후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파넬 이후에 좋은 세월이 없음의 확인, 이것이 「위원회실의 추념일」의 내용이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비역사적인 역사읽기라 할 수도 있다. 파넬 이후에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1902년 10월 6일(이 날짜는 작품내의 증거로 추정된 것임), 더블린의 선

구구역 로열 엑스체인지(Royal Exchange)의 시의원 선거에 민족당 후보(Nationalist ticket)로 출마한 티어니(Richard J. Tierney)의 어두컴컴한 선거사무실에 많은 그의 선거운동원들이 들락거리면서 웅숭그리고 불을 쪼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말의 호감이나 존경없이 후원하는 “얌체 디크 티어니”(Tricky Dicky Tierney)에 대한 불평과 남의 뒷얘기를 곁들여서 세상돌아가는 얘기, 특히 정치한담을 나눈다. 티어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목이 이토록 마른데 술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흑맥주 한 타스면 되겠다고 직접 부탁도 했었다. 그들은 티어니의 과거를 들추고, 미운 말투를 흥내내고, “구두담이 같은 작자”라고도 불렀다. 여러사람들이 나라의 정치 뒷얘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얘기중에는, 영국왕 에드워드가 더블린을 방문하면 아일랜드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 영국의 국제 상징에 대하여 냉담주의로 가는 것이 파넬의 원칙이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모두 철지난 이야기다, 파넬은 지금 이세상 사람이 아니다, 운운하며 설왕설래하는 대화장면도 끼어들어 있다.

몹시 기다리던 티어니의 술이 드디어 배달되자, 모두들 반색이 완연하다. 그런데 술은 왔으나 마개따개(corkscrew)와 잔이 없다. 새로이 작은 불판과 작은 곤혹이 잠시 일어난다. 잔은 괜찮다. 병째로 마시면 되니까. 이젠 예전부터 어엿한 신사들도 써오던 편법이다. 그런데 마개따개는? 금새 아일랜드인 다운 기지를 발휘하여 술병을 하나씩 난로 시렁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며 기다리자, “푹!”하는 작은 폭음과 함께 클크마개가 빠져나가고, 좌중은 차례대로 입맛을 다시며 혼연히 해갈하고, 실내에는 화기가 돈다. 졸던 하객들이 예포소리를 듣고서 정신이 돌아오는 꼭 그런 양으로, 그제서야 사람들은 오늘이 예사로운 날이 아니라 마침 파넬서거 9주년이 되는 날임을 상기하는 듯하다. 아이비 잎새를 옷깃에 단 것으로 보아 파넬주의자임이 분명한 하인즈(Joe Hynes)씨가 좌중의 권유에 못이겨 미리 써두었던 파넬 추모시를 낭송한다. 낭송이 끝나자 박수와 칭송이 뒤따르는데, 아무래도 민족지도자에 대한 진솔한 추념의 정과 이념에 대한 충정에서 우러러나온 감화가 아니다. 육신의 저급한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 여흥 한토막을 갈망하던 심심한 청중이 파넬이 빙자된 하인즈의 서비스에 부담없는 박수와 찬사로 의례적인 사

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수당원이지만 마침 이곳에 와서 속의 거만을 짐짓 숨기고 점잖게 남의 이야기나 들어주고 있던 고고한 분위기의 크로프튼씨도 한마디 할 차례이다. 기회주의 성향이 농후한 수다쟁이 헨치가 품평하기를 거듭 채근하자 그는 “참 잘 쓴 글”이라고 한 말씀 보탠다. 작품은 이 대목에서 마치 시치미를 뚝 떼듯 문득 끝난다.

이 작품의 파넬주제의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무실의 이름이 우연치 않게도 “위원회실”임은 제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9년전 파넬을 아일랜드 민족당의 영도자의 지위에서 표결에 의거 축출하여 유명하여진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의사당 “위원회실 15호”를 반어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티어니의 선거구는 Royal Exchange Ward로 되어 있다. 이곳은 리피강 남안에 위치한 더블린의 중심으로, 영국 왕을 대리하는 총독(Viceroy)이 기거하는 이른바 “더블린성”(Dublin Castle)을 에워싸고 있는 규모는 작지만 식민지 종주국의 존재를 상징하는 선거구이다. 선거구역 명칭의 “Royal”은 이렇게 유래한 것인데, 여기서 명목상 파넬 사업을 계승하는 “Nationalist” 당이 티어니 만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고 헨치와 같은 부류의 운동원들이 동원되어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무대 장치도 눈여겨 볼 만하다. 선거사무실의 음습한 분위기와 박명과 시원치 못한 난로의 불기운이 그 하나요, 『올리시즈』의 「이올러스」장에 서처럼, 허황된 언사의 과잉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노상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다음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언동과 수준이다. 첫 장면에서 재크 노인이 비뚤어진 자식의 문제로 낙심천만하는데, 이는 오늘 아일랜드당의 선거지원 명분으로 모인 파넬의 후속세대에 대한 코멘트로 보인다. 이 더블린 시민들이 키언 신부처럼 부정직하고, 헨치처럼 원칙없고, 라이언즈처럼 답답하고, 크로프튼처럼 가식과 오만에 가득차고, 오코너나 하인즈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마치 조이스가 대학시절 스케핑튼과 함께 자비로 발간 배포한 글의 제목처럼 “우중의 잔치날”(The Day of the Rabblement) 판을 벌이는 것이다. 아이러니의 핵심은 물론 오늘이 예사로운 날이 아닌 파넬 추모일이라는 점이다. 헨치는 한편으로는 에드워드왕의 내방에 찬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넬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임을 환기시킨다. 오코너가 볼멘 소리로 파넬 추모일이라고 상기시킨다. 그 때, 난로위의 술병에서 “푹!”하는 쿨크 예포 터지는 소리가 나고, 기회주의자 헨치와 친영적인 크로프튼은 이렇게 수작한다. 말의 거죽에 파넬의 출신과 개성에 관한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의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왜곡이라 할 만한 그런 허튼 수작이다.

--Our side of the house respects him because he is a gentleman.

--Right you are, Crofton! said Mr Henchy fiercely. He was the only man that could keep that bag of cats in order. *Down, ye dogs! Lie down, ye curs!* That's the way he treated them.

물론 이 경망스러운 입놀림의 기막힌 아리로니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헨치가 말한 다스림이 필요한 “못난 강아지들”(curs)은 다름아닌 자기 자신과 같은 부류들인 것이다.

끝으로 정작 하인즈가 낭송하는 추모의 시는 어떠한가? 이 시가 일단 파넬 추모의 충정으로 가득차 있는 점은 분명하여 보인다. 그러나 이 시를 구성하는 ABAB의 운율구조를 가진 11개의 연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몇몇은 그의 배반을 말하며, 오직 한 두 연만이 그의 부활을 노래할 뿐이다. 장차 조국 에린(Erin)에 자유가 풍미하게 되는 날이 되면,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내용은 “한가지 슬픔, 곧 파넬의 기억”이다. 이 어구가 시의 맨 끝에 놓인 마지막 말이다. 상실과 죽음의 강조는 “파넬의 죽음”(The Death of Parnell)이라 명명된 시의 제목에서도 확인된다. 이 부재(absence)의 메시지가 조이스의 파넬 담론의 핵심으로 보인다. 시낭송 이후에는 몇줄의 격려와 찬사가 오고 이야기는 끝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성탄절 만찬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실의 추념일」도 이 종결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점잖은 크로프튼의 최종 코멘트는 “그것 참 잘 쓴 글”이라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칭찬인데, 파넬이 환생하여 심판을 내린다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아마, 아무런 벌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행동거지가 이 반이방인의 무심한 냉소에 제

값을 하고 있는 한 패섬함을 두루 나누어 가진 셈이어서, 따지고 보면 유독 패섬한 특정한 누구를 지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렇게 춥고, 어둡고, 우습고, 허망한 아일랜드식 토크쇼 한 마당을 끝내는 “a very fine piece of writing”이란 이 여섯 단어로 된 간접인용 어구에는 말하는 이의 무례한 우월감만이 켜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방관자적이면서 고고한 어세 뒤에는 작가와 독자는 알되 크로프트와 그의 청중은 모를 언외의 뜻이 소리없는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는데, 그 메세지는 거둬 “파넬의 부재”이며, 소리가 없어서 오히려 파장이 긴 반어적 웅변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이스의 파넬 스토리는 역설적으로 파넬이 이미 죽어 자리에는 임하지 못하되 그렇다고 자리의 주인공이 파넬 아닌 다른 인물일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 파넬은 없으면서 있는 것이다. 작가가 파넬을 기리기 때문에 그가 주인공으로 있는 것이며, 그의 역사인식이 파넬 이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없는 것이다. 파넬은 조이스의 의식속에서 아일랜드의 나라됨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예컨대, 『더블린 사람들』의 소위 “마비” 테마의 역사적 의의는 “파넬 없음”의 세계 모습이다. 이것은 『율리시즈』의 스티븐의 “하인의 금간 거울”과 같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자연주의가 그러하듯 현실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파넬의 존재는 이와같이 작가의 현실의식의 척도인 면모가 있다. 그러나 『율리시즈』는 파넬이 부재의 형식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국면이다. 거리에서 장기두는 형 존 하워드 파넬이 언뜻 비치는 식인데, 『헤이디즈』의 파넬묘 장면이 인상적이다.

They turned to the right, following their thoughts. With awe Mr Power's blank voice spoke:

--Some say he is not in that grave at all. That the coffin was filled with stones. That one day he will come again.

Hynes shook his head.

--Parnell will never come again, he said. He's there, all that was mortal of him. Peace to his ashes.

『더블린 사람들』에서 파넬의 추모시를 낭송한 하인즈가 여기 파넬의 묘역에 서서 그의 “실효”를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한 바대로 조이스의 현실 참여적인 시평은 1912년 무렵하여 대체로 멎는데, 그 연대의 전기상의 의의가 의외로 크다. 조이스는 모든 작품을 유럽에서 쓴 셈이지만, 『율리시즈』 이전까지는 현실참여의 의식이 강한 아일랜드의 작가 조이스의 작품이고, 『율리시즈』 이후는 모더니스트 조이스가 더블린을 제재로 하여 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시기에 조이스는 현실참여의 시평을 썼고,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썼으며, 그 속에 파넬 스토리를 넣어 하이라이트를 주었고, 후자의 시기에 작가는 자신의 분신인 스티븐도 축소 소원시키면서, 파넬이 철저히 실효하였으나, 그렇다고 그 이후의 현실 역사가 펼쳐지지도 않는, 예컨대, 1904년 6월 16일의 더블린과 같은 기억속의 세계를 축조하는 것이다. 『율리시즈』 이후에 현실에 대한 열정이 실종(엄밀히 말하자면 ‘변용’이라 해야 정확하겠지만)한다 하여, 그 작품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아일랜드의 작가로서의 자격에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 티모츠코의 최근 연구서는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운동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영향하에 있었고, 『율리시즈』는 작가의 민족주의의 산물로서 아일랜드의 신화에 바탕을 둔 민족적 대서사시를 쓴 것이라는 매우 신선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Tymoczko, 1994), 그녀의 새로운 신화적 접근이 작가를 다시 역사내로 거두어 들이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파넬은 조이스의 현실의식, 역사의식을 가늠하는 척도 내지 상징이라 하겠다.

IV

파넬의 신화는 대체로, 그가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서 십분 수행하여 낸 정치적 역량과 그에 상응하는 대중적인 존경심과, 일반적으로 파넬에 대한 “배반”으로 알려졌고 그의 몰락으로 마감되는 배척운동과, 파넬 자신의 잘

드러나지 않은 신상에 고고하고 과묵한 성품이 합하여 상승작용을 한 개인 이미지의 신비화와, 되풀이되는 좌절속에서 민족적 메시아의 출현을 오래 기다려온 민중의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었다. 파넬의 명망은 그의 생존시부터 몇몇 경모의 별호를 만들어 내었는데, 『더블린 사람들』의 하인즈가 그의 추모사에서 쓴 “왕관 안 쓴 왕”(Uncrowned King)이 그 하나요, “그 어른”(the Chief)이 다른 하나이다. 근년에 파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보이스와 오데이가 공동편찬한 *Parnell in Perspective*의 서문은 한 세기를 상거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계제에 확연히 개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어른”이란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거듭하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Boyce, 1-6). 민족운동의 영웅으로서 그의 명성은 정치의 권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존 켈리(John Kelly)는 아일랜드의 역사상 무수한 민족의 영웅이 명멸하였으나 파넬만큼 문학에 무관심하였던 사람도 없고, 또 파넬처럼 문학인의 존경과 애정을 독차지한 위인도 없다 하였다(Boyce, 242). 예이츠와 아울러 조이스의 경우가 그중에서도 두드러진다.

조이스의 경우, 스티븐이 정신과 예술의 아버지를 옛 그리스 신화속의 장인 다에달로스에게서 찾았듯이, 파넬을 오랫동안 민족정신의 상징적인 대부로 삼았다.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한복판에 파넬의 음영이 무대의 뒷장막(backdrop)처럼 드리워져 왜소하게 영락한 현실의 상황을 되비추어 주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작가의 파넬 이후의 국면인 『율리시즈』나 『피네간의 경야』에도 파넬의 편린이 산재하여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가의 출신 배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엘먼은 조이스 전기에서 작가가 처음으로 출간 발표한 작품이 의미심장하게도 그가 9세에 파넬의 실각에 즈음하여 쓴 「힐리, 너마저도」(Et Tu, Healy!)라고 굳이 쓰고 있다(Ellmann 1959: 33). 전해지기로는, 파넬의 실각을 시저의 비운에 빗댄 이 시를 읽은 아버지 존 조이스가 감격한 나머지 자비로 인쇄하여 친구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인데, 이 대를 물리는 파넬 열정의 뒤에 혹시 중산층의, 그것도 영락하는 중산층의 계층적 환상이 작용하는 점은 없었는가? 예이츠의 경우가 최소한의 참고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예이츠는 그의 시와 자서전적인 여러 기록에서 아일랜드의 지도자로서 파넬의 이미지에 심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이스와는 달리 파넬이 죽기 전까지는 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파넬의 위상은 그가 비극적 드라마를 연출하여 아일랜드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 그의 부재속에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가 취한 역사파악의 대강은 조이스와 흡사하게 기본적으로 파넬이후의 아일랜드의 정치상황을 절정 이후의 퇴영적인 반(反)드라마로 보는 것이다. 「파넬의 장례」(Parnell's Funeral)에서 예이츠는 매우 특이한(필경 독단적인) 역사읽기를 하고 있다. 19세기 전반에 아일랜드를 위하여 반카톨릭 법제의 해제(the Emancipation)를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로로 “해방자”(the Liberator)로 널리 칭송되어온 오커넬(Daniel O'Connell, 1775-1847)은 사실은 그 품성에 한계가 뚜렷한 한 시대의 희극적 인물(the Comedian)이고, 아일랜드의 민족적 이상을 꿈꾸고 그 좌절을 맞본 19세기 후반의 파넬은 이에 대비되는 후속 세대의 숭엄한 비극의 인물(the Tragedian)이라는 것이다. (우연치 않게도 오커넬은 예이츠의 대부분의 역사적 영웅들과 달리 아이리쉬 캐톨릭이었다.) 파넬은 오커넬을 계승하였으나 소명과 품격이 다르다. 그의 비극은 희생(犧牲)의 제례와 같은 신비롭고 신화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An age is the reversal of an age:
 When strangers murdered Emmet, Fitzgerald, Tone,
 We lived like men that watch a painted stage.
 What matter for the scene, the scene once gone:
 It had not touched our lives. But popular rage,
Hysterica passio dragged this quarry down.
 None shared our guilt; nor did we play a part
 Upon a painted stage when we devoured his heart.

이 희생의 제례에는 민중의 광기가 곁따른다. 그들의 광기어린 분노(*hysterica passio*)가 “사냥감”을 잡는 주역인데, “우리”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죄의식을

가질 뿐, 이 희생의식에 역할이 없다. 소외된 선민의식이 완전한데, 사냥과 희생에 대한 이미지와 대중의 반성없는 몽매함과 초연하고 고고한 엘리트 의식은 「파넬의 그늘」의 종결부에서 조이스가 동원한 언사와 흡사하다.

In his final desperate appeal to his countrymen, he begged them not to throw him as a sop to the English wolves howling around them. It redounds to their honour that they did not fail this appeal. They did not throw him to the English wolves; they tore him to pieces themselves.

에이츠의 파넬숭앙의 얼마만큼이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사회적, 혈통적 유산, 곧, 영국계 프로테스탄트 지주계층 뿌리와 연관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킬리 등에 의하면(Boyce, 242-80), 에이츠를 위시한 많은 소위 “프로테스탄트 실세”(Ascendancy)계 문필가들이 파넬의 뒷자락인 1890년대에 민족문학 부흥운동을 벌이면서, 파넬을 정체성의 위기감이 날로 깊어지는 앵글로계에 희망을 주는 리더쉽 모델로 추켜 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한다. 파넬의 전성기에는 그의 정치노선에 대해 의구심 이 지나쳐 적개심을 가졌던 그레고리 부인(Lady Gregory)이 그의 몰락후에 그가 오히려 위기에 처한 앵글로 지주계층에 밝은 전망을 주는 지도자였다고 서서히 설득되는 과정을 가는데, 앵글로계 작가들 사이에 퍼진 파넬의 사후 명성의 상당한 몫이 그들의 계층적 욕망의 투사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운동과 같은 앵글로 아이리쉬 계열의 문화 민족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을뿐더러 가계 내력으로 토착 아이리쉬 카톨릭이었던 조이스가 파넬에 관하여서는 에이츠 등과 매우 비슷한 견해를 가졌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도 계층적 욕망의 투사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어느 정도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넬 담론의 어느 토막도 문학적, 심미적 편의에 따라 절대화한다면, 이 역시 역사의 배제일 것이니까. 조이스의 가문이 비록 종족과 종교의 계통은 아이리쉬 카톨릭으로서 앵글로 아이리쉬 프로테스탄트계인 에이츠와 완전히 달랐으

나,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지주계층 가문인 점에 서 같다. 조이스의 집안은 성장중에 소설속 데덜러스가처럼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이 현실의 질곡이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작가 나름의 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었고, 이 점에서 예이츠의 경우와 사회적 욕망의 근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하겠다. 말하자면 중산층의 잠재적 욕망이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치적 심미안을 가지게 한 것이다. 한편은 귀족적, 낭만적으로 표현된 시적 동기가 다른 편에서는 사실적, 중산층적, 풍자적으로 표현되고, 사회내의 기득권과 계층의 위상을 한편에서는 유지하고 다른 편에서는 영락하여 내려가고, 한편에서는 아일랜드의 독립전망에 불안을 느끼고 다른 편에서는 소원하여져 있는, 이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같이 파넬의 비전에 서 역사의 위기와 소외에 대한 위안을 찾았다.

예이츠는 세기말 이후 가중되는 민족적 정체성의 불안을 파넬 리더십의 추인과 재발견에서 보상하려 하였다. 이에 비해, 조이스는 계층적 소외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넬을 붙들었으나, 그의 파넬은 언제나 부재의 존재였다. 이것이 조이스의 완강한 부정의 민족주의를 설명한다. 작가의 원숙기인 『율리시즈』이후가 되면, 민족 모티브는 더욱 왕성하나, 뜨거운 파넬은 없다. 이 시계에도 조이스 특유의 “헛갈리는 민족주의(bedeveled nationalism)” (Fairhall, 49)도 존속하되, 파넬과 함께 뜨거운 부정은 가고, 소외는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적나라한 사실이 오히려 신화처럼 편안한 경지, 모더니스트 국제주의이기도 하지만 심미적 민족주의이기도 한 경지가 새로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인용문헌

- Abels, Jules. *The Parnell Tragedy*. N. p., 1966.
- Boyce, D. George and Alan O'Day, eds. *Parnell in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 Brown, Malcolm. *The Politics of Irish Literature: From Thomas Davis to W. B. Yeat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2.
- Deane, Seamus. *Celtic Revivals: Essays in Modern Irish Literature 1880-1980*. London: Faber and Faber, 1985.
- Ellmann, Richard, ed.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Foster, R. F. *Modern Ireland: 1600-1972*.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8.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Joyce, James.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6.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Kavanagh, Patrick. *Collected Poems*.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73.

- Kenner, Hugh. *Uly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 Mason, Ellsworth and Richard Ellmann, ed.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Philpin C. H. E. ed. *Nationalism and Popular Protest in Ire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poof, Robert.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History: Dedalus's Nightmar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Tymoczko, Maria. *The Irish Uly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Yeats, William Butler. *The Autobiography of William Butler Yeats*. New York: Collier Books, 1965.
- Yeats, William Butler.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275-6)
- James Joyce Quarterly*. Papers from the Joyce and History Conference at Yale, October 1990. 28-4, Summer 1991. Tulsa: University of Tulsa, 1991.